| 5·18민주화운동 |

열흘간의 항쟁, 열가지 이야기

광주광역시교육청
Gwangj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5·18기념재단

| 5·18민주화운동 |

열흘간의 항쟁, 열가지 이야기

기획 이재남(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국장)
오경미(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박혜경(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

구성 김재황(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신수연(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주무관)

검토 5·18기념재단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5·18민주화운동기록관
5·18역사왜곡에 대응하는 교사모임(임광호 외)
5·18선도교사단(백성동 외)

발행일 2019. 5. 9.
발행처 광주광역시교육청
발행인 광주광역시교육감 장휘국
전 화 062-380-4596
팩 스 062-380-4685
만든곳 디자인 이스 마인

들어가기 전에...

내년이면 5·18민주화운동이 발생한 지 40년이 됩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은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실, 올곧은 판단이 가능할 수 있는 세월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5·18민주화운동에 있어서 40년이라는 시간은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1980년 당시 신군부가 그들의 폭압을 정당화하기 위해 펼쳤던 심리전과 선전전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회자되고 증폭되어, 심지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마저도 망언을 서슴치 않는 정도에 이르렀으니, 1980년 그 날의 역사를 만들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흘린 피와 땀을 대면할 때 어찌 대면해야 할 지 면목이 없습니다.

우리 시교육청 외에도 광주광역시, 5·18기념재단,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등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함께 이루어낸 여러 성과들,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려내고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교육 및 홍보 자료 가운데 반드시 알리고 싶은 열흘간의 항쟁 이야기, 진실들을 다시 한 번 발췌하게 된 이유입니다.

5·18민주화운동은 새로운 사실이나 이야기 보다 이미 밝혀진 진실에 대한 공감과 정당한 평가가 필요한 우리 모두에게 귀하고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고, 진실은 침몰하지 않기에 많은 내용을 담기보다는 결코 왜곡되어서는 안 되는 역사, 그리고 기억하고 간직해야 하는 이야기를 되돌아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5·18민주화운동을 다시 생각하고, 찾아보고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참여하고 협조해주신 여러 기관(단체), 모든 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앞두고

광주광역시교육감 **장 휘 국**

차례

들어가기 전에 ●● 5

일러두기 ●● 9

5월 광주, 열흘간의 항쟁일지 ●● 11

우리가 알아야 할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10가지 이야기 ●● 35

5·18민주화운동 관련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곳 ●● 56

비상계엄 즉각 해제하라!

일러두기 NOTICE

이 책에 담긴 내용은 광주광역시(2018) "왜곡과 진실, 5·18",
5·18민주화운동기록관(2018) "5·18 기초사료조사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민주언론시민연합(2018) "5·18 역사왜곡 관련 팩트체크 보고서",
전남대학교병원(2017) "5·18 10일간의 야전병원",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2007) "12·12, 5·17, 5·18사건 결과보고서"
5·18기념재단 누리집(www.518.org)에 수록된 내용과 자료를 발췌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 저작권은 해당 기관(단체)에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의 항쟁 일지는
5·18기념재단 누리집(www.518.org)의 "5·18타임테이블"을 수록하면서,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작성한
"12·12, 5·17, 5·18사건 결과보고서"의 내용 일부를 추가하였습니다.

5월 광주,
열흘간의 항쟁일지

©나경택

'박정희 시대' 18년의 종말과 민주주의의 여명

1961년 5월 16일, 군부가 무력으로 국가 권력을 장악했다. 4·19혁명이 일어나고 이듬해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이 거세게 반발했지만 박정희 정권은 삼선개헌, 유신헌법, 긴급조치 등을 통해 군사독재 체제를 유지하려 했다.

폭압성을 더해가던 군사독재는 각계 각층의 저항에 부딪히다, 1979년 10월 16일 '부·마 민주항쟁'을 계기로 위기를 맞이하였다. 결국 그로부터 열흘 뒤인 10월 26일, 박정희는 부하였던 김재규의 총에 의해 죽게 된다. 군사독재에 신음하던 국민들은 박정희의 사망을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여명으로 받아들였다.

민주주의의 여명을 짓밟은 '12·12 군사정변'과 '5·17' 계엄 확대

그러나 박정희가 사망한 후, 신군부는 국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12·12 군사정변'을 일으켰다.

이에 반하여 재야인사와 주요 야당의원은 '계엄해제와 민주화 이행'을 주장했고, 전국의 수많은 대학생은 학원의 자율화와 민주화를 요구했다.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사회 전반에 걸쳐 분출되던 '80년의 봄'이었다.

80년 4월 신군부 계엄 확대, 계엄군 대학 진주

1980년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은 새로운 권력 창출에 나섰다. 4월 14일 전두환은 중앙정보부 부장서리를 겸직하면서 정보기관을 장악했다. 동시에 보안사에서는 국내 정세 불안을 해소한다는 명목 아래 5월 초순께 [시국수습 방안]을 기획했다. 시국방안은 사실상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의 권력 장악을 위한 것으로, △비상계엄 전국 확대 △국회 해산 △대학가 휴교 등이 들어가 있었다.

한편, 1980년 5월 10일, 23개 대학 대표로 구성된 전국 총학생 회장단은 '비상계엄의 즉각 해제, 전두환·신현확 등 유신잔당의 퇴진' 등을 담은 결의문을 선포하였고, 거리시위를 계획했다.
5월 13일부터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시민들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거리시위를 시작했다. 5월 15일 서울역 앞 집회는 그 정점을 이루었다. 하지만, 신군부의 무력 진압을 염려한 서울 지역 대학생들은 '서울역 회군'을 단행했고, 야당 지도자들은 정부 측에 '19일까지 시국수습대책에 대한 답변을 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신군부는 5월 17일 24시를 기해 전국 계엄령 확대를 시행했다.

시위는 서울 뿐만이 아니라 광주에서도 전개되었다.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전남대학교(총학생회장 박관현) 외 대학생들과 시민들은 전남도청 일대에서 거리시위를 벌였다. 시위를 벌이던 사람들은 "계엄령을 해제하라", "전두환은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쳤다. 신군부 세력은 5월 17일 정오에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같은 날 저녁에 열린 국무회의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 조치했다. 노태우 수경사령관은 국무회의 장소에 수경사(서울의 경비를 주 임무로 하는 군부대) 소속 무장 병력을 출동시켜 무력시위를 통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보다 앞서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은 예비검속 대상자들을 연행했고, 그 날 자정 무렵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에 따라 전국 주요 대학에 계엄군이 진주했다.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는 정권 장악의 가장 큰 걸림돌인 대학가와 민주인사를 사전에 제압하는 조치였다. 5월 17일 24시를 기해 제7공수특전여단(여단장 신우식)이 광주로 출동, 전남대와 전남대 의대, 광주교대, 조선대에 진주했다.

| Day |

1980년 5.18

일요일, 맑음

© 나경택

09:40

- 5월 14일에서 16일까지 당시 전남도청 앞 분수대광장에서 열린 평화로운 민족민주화성회에서 학생과 시민들은 비상계엄이 확대되면 오전 10시에 각 대학 정문 앞에서, 그리고 12시에는 전남도청 앞 분수대에서 모이자고 약속함. 이 약속을 기억한 전남대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서려 하자 이를 가로 막는 7공수부대와 대치

10:00

- 학생들이 "계엄 해제하라" "휴교령 철폐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항의시위

©나경택

10:15 ● 곤봉을 휘두르는 공수부대원들의 진압으로 학생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짐

10:20 ● "금남로로 가자"는 구호와 함께 학생들이 금남로로 이동하기 시작

15:40 ● 유동 3거리에 공수부대가 등장하면서 무자비한 진압작전 감행

©이창성

18:00 ● 18시 경 계엄사령부, 광주지방 통행금지시간이 저녁 9시로 앞당겨졌다고 발표

뒷페이지에서 계속

| Day |

1980년 5.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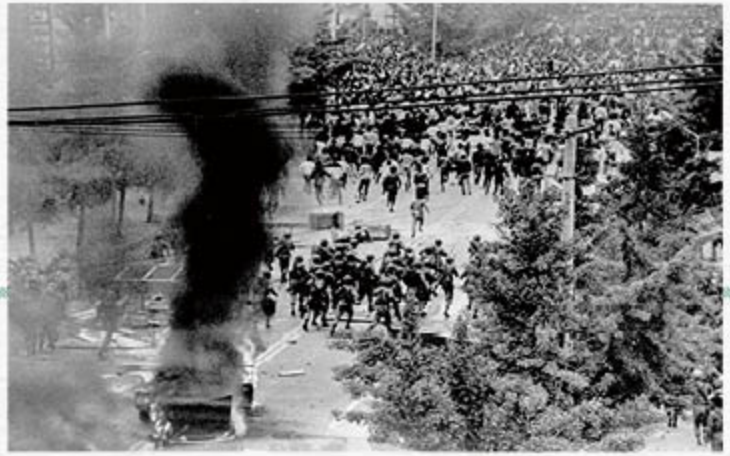
월요일, 오후부터 비

03:00

- 새벽 3시경 증파된 11여단 병력, 광주역 도착.
  전날(18일) 계엄군에게 영문도 모른 채 구타당했던
  청각장애인 김경철 사망

10:00

- 시민들 수가 점차 불어나면서 금남로에서 공수부대원들과 투석전 전개



©연합뉴스

©이량재

©이량재

14:40 ● 조선대로 철수했던 공수부대가 다시 투입되어 무리한 진압작전 전개

뒷페이지에서 계속

15:00

- 시내 기관장 및 유지들, 회의를 갖고 시위 진압을 완화하도록 건의

16:30

- 계림파출소 근처에서 계엄군의 장갑차가 시위군중에 의해 포위되자 시민을 향해 발포, 첫 발포로 조대부고생 김영찬이 계엄군의 총에 의해 부상당하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분노한 시민들이 더욱 격렬하게 투쟁함

©나영배

20:00

- 수 만 명의 시민들이 "전두환 타도"를 외침

| Day |

1980년 5.20

화요일, 오전에 약간의 비

08:00 ● 중·고등학교 휴교조치

10:20 ● 가톨릭센터 앞에서 남녀 30여명이 속옷만 입은 채 심하게 구타 당함
공수부대와 시민 사이 공방전 계속

©연합뉴

뒷페이지에서 계속

18:40

- 광주시내 곳곳에서 공수부대의 만행을 직접 목격하고 실제로 폭행 피해를 겪은 운전기사들에 의해 무등경기장에서 금남로로 200여 대의 차량들이 전조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차량시위를 벌이자 시위대 분위기 고조

©이창성

20:10

- 시민들 전남도청을 향해 금남로, 충장로, 노동청 방면에서 공수부대, 경찰과 대치

21:05

- 노동청 쪽에서 시위대 버스가 경찰저지선으로 돌진하는 과정에서 경찰 4명 사망

21:50

- 21시 50분이 넘은 시각, 계엄 하에서 군부의 검열을 받던 언론이 과잉진압 행위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자 시민들 거센 항의를 하며 광주MBC 건물 방화

©이창성

23:00

- 광주역 광장에서 무자비한 유혈 진압에 항의하던 비무장 시민들을 향해 계엄군이 총을 쏘아 사망자 다수 발생

| Day |

1980년 5.21

수요일, 맑음

00:35 ● 노동청 방면에서 군중 2만여 명이 계엄군과 공방전 전개

02:18 ● 시외전화 두절

04:00 ● 시민들이 광주역 광장에서 발견된 시신 2구를 리어카에 싣고 금남로에 등장, 이 소식을 들은 시민 수십만 명이 항쟁에 적극 동참함

©이창용

뒷페이지에서 계속

04:30 ● 광주KBS 건물 방화

08:00 ● 시위대, 광주공업단지 입구에서 20사단 병력과 충돌

10:15 ● 전남도청 앞에 주둔 중이던 계엄군 중 실탄 지급받은 공수부대원 맨 앞으로 교체

10:19 ● 광주세무서 건물 전소

11:10 ● 대형혈기, 전남도청 광장에 도착

©이창우

©한국일보

13:00
- 전남도청 스피커에서 애국가 울려 퍼지면서 공수부대 집단 발포, 전남도청 주변 건물 옥상에 공수부대 저격병 배치

13:20
- 시민들이 금남로에서 공수부대의 집중사격을 받고 계속 쓰러짐

©나경택

14:15
- 도지사, 경찰헬기에서 시위해산 종용하는 설득 방송

14:35
- 시민들이 아시아자동차공장에서 군용트럭, 장갑차 수십대 획득

15:48
- 공수부대원들이 주요빌딩 옥상에서 시위대를 향해 조준사격

16:00
- 화순, 나주지역에서 무기 획득한 시위대들이 전남도청 앞에서 시가전 전개

16:43
- 학생들, 전남대병원 옥상에 기관총(LMG) 2대 설치

17:30
- 공수부대, 전남도청에서 조선대학교로 철수 시 외곽 봉쇄, 광주 고립됨

| Day |

1980년 5.22

목요일, 맑음

09:00 ● 전남도청 광장과 금남로에 시민들 집결

10:30 ● 군용헬기 공중선회하며 "폭도들에게 알린다"는 내용의 전단 살포

11:25 ● 적십자병원 헌혈차와 시위대 차량이 돌아다니며 헌혈 호소

12:00 ● 전남도청 옥상의 태극기, 검은 리본과 함께 반기 게양

©나경채

©광주일보

5월 광주, 그날의 진실

13:30 ● 시민수습위 대표 8명이 상무대 계엄분소 방문, 7개항의 수습안 전달

15:58 ● 시신 18구가 전남도청 광장에 안치되자, 자생적인 시민들의 집회가 열림

©나경휘

17:18 ● 수습위 대표, 상무대 방문결과 보고

17:40 ● 전남도청 광장에 시체 23구 도착

21:30 ● 박충훈 신임국무총리,
"광주는 치안 부재상태"라고 방송

뒷페이지에서 계속

| Day |

1980년 5.23

금요일, 맑고 한때 흐림

08:00 ● 학생들과 시민들, 금남로 일대 등 자발적 청소에 나섬

10:00 ● 시민 5만여 명이 전남도청 광장에서 집회

10:15 ● 학생수습위원회가 총기 회수작업 시작

©이광우

5월 광주, 그날의 진실

11:45

- 전남도청과 광장주변에 사망자 명단과 인상착의 벽보 게시

©나영석

13:00

- 지원동 주남마을 앞도로에서 공수부대가 화순으로 가던 소형버스에 총격. 승객 18명 중 15명 현장에서 사망, 1명(여고생 홍금숙)만 생존. 부상을 당한 남자 2명은 주남마을 뒷산으로 끌고 가 살해하고 암매장. 이곳에 묻혀있던 시신은 5·18 직후 주민의 신고로 발굴됨

15:00

- 제1차 범시민 궐기대회 개최, 계엄사의 경고문 전단이 시내전역에 살포됨

19:40

- 일부 회수된 총기를 반납한 대가로 석방된 시민 33명 전남도청 광장에 도착. 시민대표, 계엄분소와 협상 결렬 보고

뒷페이지에서 계속

| Day |

1980년 5.24

토요일, 오후에 비

13:20
- 공수부대, 진월동 원제마을 근처에서 놀던 어린이들과 저수지에서 수영하던 소년들에게 사격.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전재수, 중학교 1학년생이었던 방광범 등이 사망

14:20
- 송암동에서 퇴각하던 공수부대와 잠복해있던 전교사(전투교육사령부)부대 간의 오인 총격전 발생으로 다수 군인들 사망 또는 부상. 군인들이 화풀이로 인근 마을 무고한 주민들 다수 살상

14:50
- 제2차 민주수호 범시민 궐기대회 개최

©나영석

| Day |

1980년 5.25

일요일, 비

11:00 ● 김수환 추기경의 메시지와 광주항쟁 구호대책비 1천만 원 전달

©나홍식

15:00 ● 제3차 민주수호 범시민 궐기대회 개최

17:00 ● 재야 민주인사들, 김성용 신부의 4개항 수습안에 대해 만장일치 채택

21:10 ● 학생수습대책위원들, 범죄발생 예방과 식량공급 청소문제 등 논의

뒷페이지에서 계속

| Day |

1980년 5.26

월요일, 아침 한때 비

05:20 ● 계엄군, 화정동 쪽에서 농촌진흥원 앞까지 진출

08:00 ● 시민수습대책위원들, 계엄군의 시내진입 저지를 위해 '죽음의 행진' 감행

10:00 ● 제4차 민주수호 범시민 궐기대회 개최

©나경택

5월 광주, 그날의 진실

14:00
- 학생수습위원회, 광주시장에게 생필품 보급 등 8개항 요구

15:00
- 제5차 민주수호 범시민 궐기대회 개최

17:00
- 학생수습위원회 대변인 윤상원, 외신기자들에게 광주상황 브리핑

19:10
- 시민군, "계엄군이 오늘밤 침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공식 발표, 어린 학생들과 여성들을 귀가조치 시킴

24:00
- 시내전화 일제히 끊김

뒷페이지에서 계속

| Day |

1980년 5.27

화요일, 맑음

03:00

- 탱크를 앞세운 계엄군 시내로 진입하기 시작 "시민 여러분 지금 계엄군이 쳐들어 오고 있습니다.... 계엄군과 끝까지 싸웁시다... 여러분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여성의 애절한 시내 가두방송이 이어짐

04:00

- 도청 주변 완전 포위, 금남로에서 시가전 전개

04:10

- 계엄군 특공대, 전남도청 안에 있던 시민군들에게 사격

©나경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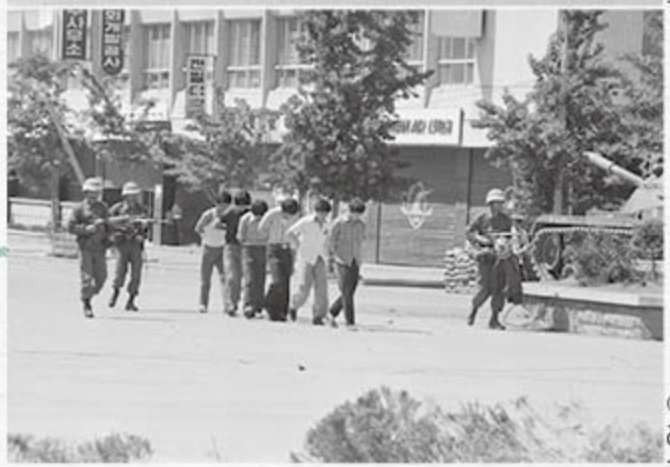
©나경택

5월 광주, 그날의 진실

05:10 ● 계엄군, 전남도청을 비롯한 시내전역 장악하고 진압작전 종료

06:00 ● 계엄군, "시민들에게 거리로 나오지 말라"고 방송

©나경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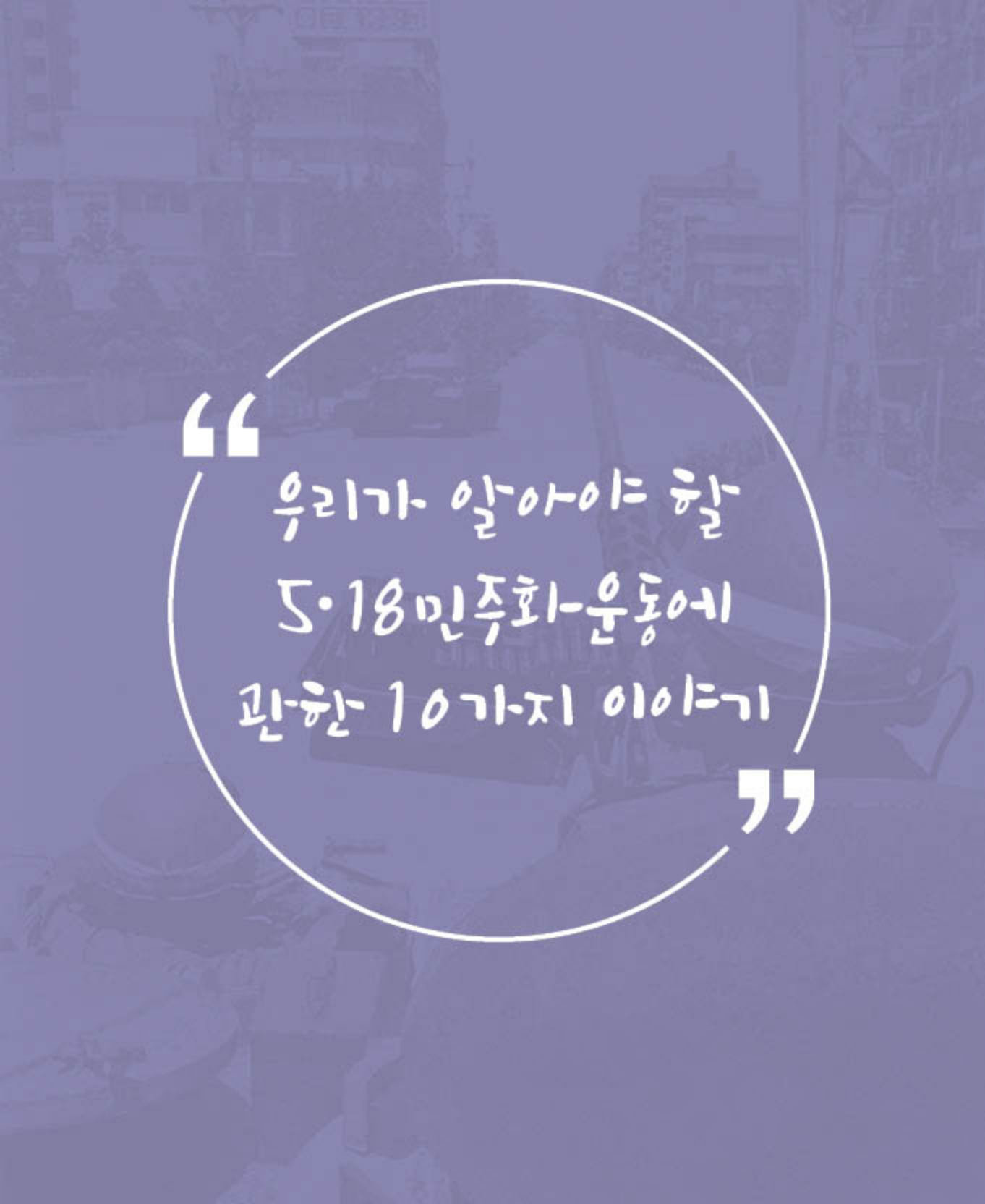
©나경식

©이창성

07:00 ● 3공수, 7공수, 11공수부대 20사단 병력에 도청 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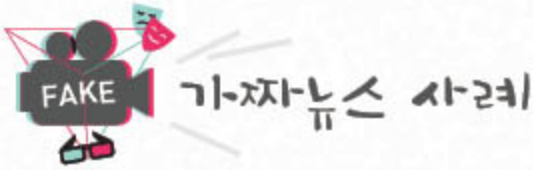
08:50 ● 시내전화 통화 재개

©이창성


우리가 알아야 할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10가지 이야기

01

계엄군의 과격한 진압이 시민들의 항쟁 열기에 불을 붙였습니다.



사례 01

정웅 사단장의 작전지침은 위력시위를 생략한 채 시위대의 모든 퇴로를 차단 봉쇄하고, 체포 위주로 시위를 진압하라는 것이었다. 도망가는 시위대를 끝까지 추격하게 되면 퇴로가 막힌 시위대는 체포하려는 군인과 충돌을 빚게 된다. 결사적으로 저항하는 시위대를 잡으려다보면 군인들의 행동도 거칠어질 수 밖에 없다.

– 2017 전두환 회고록 1권 498쪽

사례 02

오늘의 엄청난 사태로 확산된 것은 상당수의 타 지역 불순인물 및 고첩*들이 사태를 극한적인 사태로 유도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고장에 잠입, 터무니없는 악성 유언비어의 유포와 공공시설 파괴, 방화, 장비 및 재산 약탈행위 등을 통하여 계획적으로 지역감정을 자극, 선동하고 난동행위를 선도한 데 기인된 것이다.

– 1980년 5월 21일. 계엄사령관 이희성 담화문

*고첩: 고정간첩

팩트체크

©나경택

- 공수부대 시내 출동, 융통성 있게 운영. 전 가용 작전부대 투입
  주모자 체포, 단호한 조치, 포고령 위반자는 가용수단 동원 엄중 처리
  소요자는 최후의 1인까지 추격하여 타격 및 체포

  ● 1980.5.18. 23:00 2군 사령관 강조사항

- 계엄부사령관 지시사항. 80.5.18. 계엄부사령관은 전남대학교 소요에 단호한 계엄사의 조치를 보여주기 위하여 보안사 계통에서 전교사령관에게 지휘 조언, 강력하게 다루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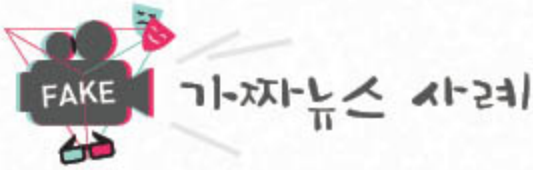
  ●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속보철」(1980.5.19.), 『383-1980-89』, 11쪽

- 우리 위원회와의 면담에서 광주 시내에서의 시위 진압에 투입된 한 공수부대원은 시위진압이 해산 위주가 아닌 체포 위주였기 때문에 과격진압이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광주시내에 투입된 공수부대원들은 체포 위주로 진압했기에 단시간에 많은 사람들을 체포했다.

  ● 2007.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65쪽

02

5월 21일, 전남도청 앞에서 공수부대원들은 비무장 시민에게 집단으로 발포하였습니다.



사례 01

5월 21일 13시의 전남도청 발포는 8번째 발포였으며 이는 시민들이 횡대로 서 있는 계엄군을 향해 갑작스럽게 장갑차를 돌진해오는데 당황한 장갑차 소대장이 기관총을 잘못 건드려 하늘로 발사된 사격이었다. 공수부대를 향해 장갑차와 대형트럭을 몰고 연속적으로 지그 재그식 돌진공격을 감행하여 공수부대원 2명의 사상자를 냈다. 계엄군의 집단 발포는 이런 충격에 맞서기위한 자위적 사격이었던 것이다.

– 지만원 솔로몬 앞에선 5·18

팩트체크

©나경택

13:00 직전에 시위대에서 시위진압에 지원나왔던 기갑학교 소속 장갑차 한대에 화염병을 던지자, 불이 붙은 이 장갑차는 뒤로 후진했다. 동시에 시위대 장갑차가 돌진했다. 저지선이 붕괴된 계엄군은 도청 분수대 뒤와 도로 주변으로 피신했으며, 그 과정에서 11공수여단 63대대 8지역대 소속 무전병 권용운 일병이 장갑차에 깔려 사망했다. 장갑차가 잠시 멈춘 다음 분수대를 돌아나갈 때 장갑차에 사격을 했고, 뒤따라오던 버스가 돌진하자 10여명의 공수부대원이 버스에 사격을 가해 운전사가 사망하면서 분수대를 들이받고 멈췄다. 이어 뒤따라오던 차량과 시위대가 도청쪽으로 몰려들고,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서 분수대 앞에 있던 공수부대원들의 집중사격이 이루어졌다. 시위대가 뒤로 피신하기 시작하였고, 공수부대원들은 도청 광장을 장악했다. 금남로에 산발적으로 시위대가 나오면 공수부대원들이 조준사격을 했다. 심지어는 부상자 등을 부축하기 위해 나오던 시위대에게도 사격을 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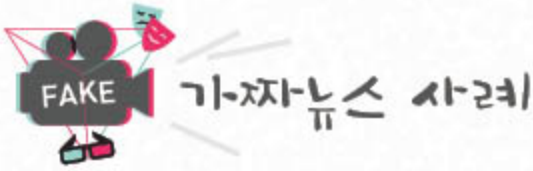
● 2007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86쪽

20일 밤 시위대는 광주역 일대에서 공수부대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일부 대대는 포위되기도 했다. 차량을 동원한 시위로 공수부대원 1명이 숨졌고, 대대장들은 발포를 요청했다. 이 때 최세창 여단장은 작전참모와 작전과 선임하사 지휘 하에 본부중대 병력을 동원, 각 대대에 M16 실탄 반출과 배부를 명령했다.

●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 속보철, 1980.5.20. 22:27

03

북한군 광주 침투설은 신군부에 의해 조작된 역사 왜곡이자, 가짜 뉴스입니다.



사례 01

광주사태는 소수의 좌익과 북한에서 파견한 특수부대원들이 순수한 군중들을 선동하여 일으킨 폭동이었다.

– 지만원 2002년 8월 16일, 신문광고

사례 02

5·18은 순전히 600여명의 북한 특수군이 일으킨 모략작전이었고, 광주인들은 민주화운동을 위해서든 폭동을 위해서든 독자적인 시위대를 구성한 바 전혀 없다. 북한군 600명은 5월21일 오후부터 22일 새벽까지 마지막 발악을 하듯이 광주교도소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때 참호를 파고 대기하던 공수부대와 고지쟁탈전을 벌여 아마도 많은 북한특수군이 사살됐을 겁니다. 북한특수군은 중상을 당했을 경우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죽기 전에 소형의 폭발물로 자기 몸을 분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고 합니다.

– 지만원 2014 5·18분석 최종 보고서

팩트체크

신군부는 5·18기간 동안 '북 공작원 독침사건'을 조작하는 등 시민군을 북한과 연계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던 상황이었음. 그러나 신군부는 그 어떤 북한군의 침투는 물론 북한과의 연계의혹을 밝혀내지 못하였음.

● 2007.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5·18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반하는 표현은 역사 왜곡이고, 역사 왜곡은 반사회적 행위로, 이에 가담한 일베 회원들의 글은 삭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북한특수군 개입을 증언시킨 방송들은 방통위를 통해 제재할 것이며 역사 왜곡자들은 검찰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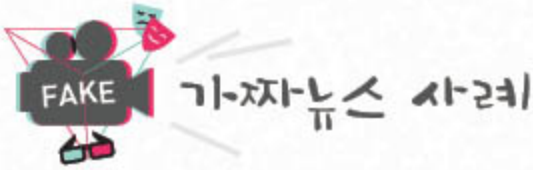
● 정홍원 국무총리 (2013. 6.10)

대대규모 북한군의 광주개입설 같은 황당무계한 억지, 최소한의 인식능력만 있어도 허구성을 곧바로 알 수 있는 주장에 넘어가는 것은 자기폭로가 된다. 600명의 군인들이 흔적도 없이 나타나, 유혈사태를 저지른 뒤,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은 투명인간이 아니면 불가능하고, SF영화로도 만들 수 없는 일 아닌가?

● 조갑제의 광주사태 (2013. 6)

04

5·18 당시 광주 시민군들은 광주교도소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사례 01

5·18 사태 때 계엄군은 광주시내는 물론 광주시 외곽 등 여러 곳에서 흉기 또는 총기를 든 시위대의 공격을 받았지만 공격 양상이 가장 집요했던 것은 광주교도소에 대한 공격이었다. 모두 여섯 차례나 무장시위대의 공격을 받았다. 북한이 광주에 있는 여러 고정간첩망에게 광주교도소를 습격하여 해방시키라는 지령을 내리는 것이 우리 정보당국에 의해 포착되었다.

– 2017 전두환 회고록 1권 518쪽

팩트체크

80년 5월 22일 밤 갑자기 교도소 인근에서 총소리가 들려 다음날 아침 확인해 보고 공수대원과 시민군 간에 교전이 있었던 것을 알았으며 공수대원의 총에 맞아 숨진 희생자의 시신과 부상자 모두 담양으로 가는 도로에 널려 있었다. 시민군이 교도소를 습격했다면 교도소 주변에 시체가 있어야지 어떻게 도로에 있을 수 있겠느냐. 당시 교도소에는 3공수여단 병력이 중무장하고 있어서 교도소 습격이란 상상할 수도 없었고 계엄군이 시 인근 지역의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 무차별 발포한 것으로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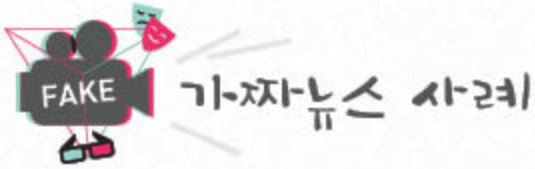
● 1995.12.14. 일자 연합뉴스, 한도희 당시 광주교도소장 인터뷰

계엄군들은 외곽봉쇄지역에서 무차별적으로 총기를 난사했고, 외곽지역에서는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계엄군의 발포로 인해 가족과 함께 광주교도소 앞을 통과하던 차량, 아이들과 함께 광주를 떠나던 사람, 계엄군 주둔지역의 마을주민 등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다. 3공수여단이 철수해 봉쇄작전을 수행했던 광주교도소 부근에서도 민간인 살상이 발생했다. 당시 3공수여단이 경계했던 광주교도소 부근은 광주-담양을 오가는 길목에 위치했다.

● 2007.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94쪽

05

전일빌딩에 대한 헬기를 통한 기관총 사격이 있었던 사실은 계엄군의 폭력이 단순한 시위 진압과 방어권 행사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사례 01

헬기 기총소사 주장은 헬리콥터의 기체 성능이나 특성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이거나, 아니면 계엄군의 진압활동을 고의적으로 왜곡하려는 사람들의 악의적인 주장일 뿐이다. 그가(인용자 피터슨 목사) 제시한 사진도 가짜였다. 목사라는 사람이 무슨 이유로 가짜 사진까지 가져와서 허위진술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는 목사가 아니라 가면을 쓴 사탄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 2017 [전두환 회고록 1권] 480쪽

사례 02

500MD나 코브라로 사격을 하였다면 엄청난 위력이 있어 나뭇잎이 우수 수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가로수의 가지가 다 잘려 나가고 바닥에 큰 홈이 생길 정도이며, 당시 제가 알고 있기로는 UH-1H는 일체 무장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기관총으로 사격을 했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 말입니다.

– 1995년 5월 17일. 31항공단 단장 검찰 진술조서

팩트체크

전일빌딩 외벽의 총탄흔적

3. 감정결과

이상의 현장조사 및 검토 결과,

가. 전일빌딩 외벽에서 구경 5.56mm 또는 구경 0.3 인치 탄환에 의한 탄흔으로 유력한 흔적 35개를 확인함.

나. 전일빌딩 10층에 위치한 전일방송 내부의 기둥, 천정 텍스, 바닥 등지에서 최소 150개의 탄흔을 식별하며,

다. 발사 위치는 호버링 상태의 헬기에서 발사되었을 가능성이 유력하게 추정되나, 탄흔의 크기와 탄흔의 생성 형태가 상충하는 현재까지의 결과만으로는 사용 총기의 종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단할 수 없음.

라. 중2호 감정물은 생산 시기로 보아 7.62mm 탄피와 5.56mm공포탄은 사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5.56mm 탄피와 0.3인치 탄피는 당시 사용된 실탄의 탄피일 가능성이 인정되며, 0.3인치 탄환은 관련성 논단이 불가함.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일빌딩 총탄 흔적 법안전감정서] 11쪽

지침. 1980.5.22.08:30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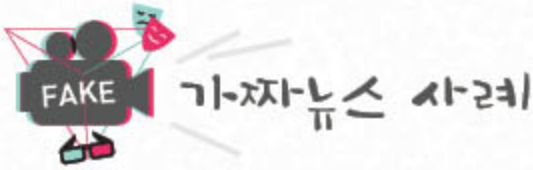
Hel기 작전계획 실시하라.

3. 폭동이 확산된 군 단위에는 상공을 감시정찰 비행하여, 버스나 차량 등으로 이동하면서 습격 방화 사격하는 집단은 지상부대 지휘관의 지시 따라 사격 제압하라. 필요시 UH-1H로 지상부대 병력을 긴급 공중기동 차단 추격하라."

● 1980. 전교사 [충정작전계획]

06

항쟁 기간에 시민들이 이루어낸 자치공동체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사례 01

광주지구의 소시민층에는 식량을 비롯한 생필품의 고갈로 심대한 고통을 받고 있으며, 또한 의약품의 고갈로 노약자 및 환자의 희생이 증대되고 있어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새로운 집단 범죄의 발생이 염려됨

– 1980년 5월 25일, 계엄사령부[충정작전 지침]

팩트체크

©나경택
©한국일보

"21일 저녁부터 27일 아침까지 해방광주는 시민들의 손에 있었다. 어떤 은행도 약탈당하지 않았고 강도, 강간, 절도는 일어나지 않았다. 외국인들은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했다. 전 도시가 하나의 대가족처럼 한데 뭉쳤다."

● 조지 카치아피카스(미국 웬트워스공대 교수)

"혈액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순식간에 밖으로 퍼져 나갔다. 항쟁지도부에서도 호외나 가두방송을 통해 이 상황을 사람들에게 알렸고,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혈액원 입구에서 병원 정문까지 구불구불하게 줄을 늘어선 사람들의 모습은 아직도 눈에 선하다. 그 중에는 어린 학생들도 많았다. 자신의 피라도 써달라며 우는 여고생들도 있었다. 16세 이하 아이들과 69세 이상 성인은 규정상 헌혈을 할 수 없어서 돌려보내기도 했다."

● 서순팔(당시 전대병원 레지던트) [5·18 10일간의 야전병원] 94쪽

"21일부터 동네 아줌마들이 시위대에 밥을 해준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쌀을 거뒀다. 나도 라면을 내주었고 동네 아줌마들이 밥을 하고 김치를 담아서 시위대 차량들이 다니는 도로에 놓아 두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키가 커서 지나가는 시위대에 그것을 올려 주었다."

●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2000년, [여성·주체·삶] 중

07

5·18민주화운동 과정에 학생들의 희생과 참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짜뉴스 사례

사례 01

당시에 운동권은 다 도망하고 없는 가운데 양아치와 껌팔이 등부나비들이 광주에 침투한 북한군의 지도하에 부화뇌동하여 일으킨 정당한 계엄 업무에 임한 공권력인 계엄군에 대항한 무장폭동이었다.

– 지만원, "수사기록으로 본 12·12 5·18"

사례 02

5월 27일 도청 진압작전시에도 계엄군에 의한 시위대의 사살은 단 한명도 없었다.

– 김대령, "역사로서의 5·18"

사례 03

지역 내의 폭도들의 상당수가 살인방화 등의 범법자, 흉악범 및 불량배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계엄군의 선무공작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

– 1980년 5월 25일, 계엄사령부, [충정작전지침] 중

팩트체크

©나경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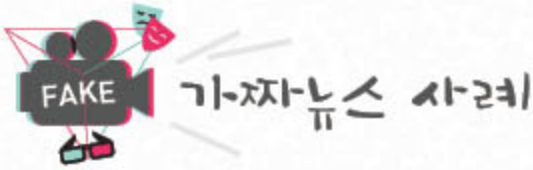
현재 확인된 5·18민주화운동 당시 희생된 초·중·고 학생 명단

구분	당시 교명	학년	이름	생애	현재 교명
1	광주효덕초	초4	전재수	1969.5.15~1980.5.24	광주효덕초
2	전남중	중1	방광범	1969.9.21~1980.5.24	전남중
3	광주무등중	중3	김완봉	1966.7.24.~1980.5.21.	무등중
4	숭의중	중2	박창권	1966.5.2~1980.5.21	숭의중
5	광주서광여중	중3	김명숙	1965.9.4.~1980.5.27	광주서광중
6	조선대부속중	중3	김부열	1963.5.3.~1980.5.24	조선대부속중
7	광주동신중	중3	박기현	1966.2.8~1980.5.20	광주동신중
8	광주상업고	고1	문재학	1964.6.1.~1980.5.27.	광주동성고
9	광주상업고	고1	안종필	1964.7.3~1980.5.27	광주동성고
10	숭의실업고	고1	양창근	1964.12.10.~1980.5.22	숭의과학기술고
11	송원고	고2	김기운	1962.6.22.~1980.5.21	송원고
12	살레시오고	고2	김평용	1963.9.5.~1980.5.25.	살레시오고
13	춘태여상고	고3	박금희	1963.7.13.~1980.5.21.	전남여상고
14	광주상업고	고2	이성귀	1964.3.11.~1980.5.21	광주동성고
15	조선대부속고	고3	박성용	1963.1.26~1980.5.27	조선대부속고
16	신의여고	고3	박현숙	1964.3.27~1980.5.23	송원여상고
17	광주대동고	고3	전영진	1962.2.5~1980.5.21	광주대동고
18	광주제일고 부설방송통신고	고3	황호걸	1960.10.7~1980.5.23	-

● 광주광역시교육청 [5월, 청소년을 기억하다]

08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여러 나라 민주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례 01

광주사태
: 5월 18일 오전 9시경 전남대학생 200여명이 대학 정문에서 계엄군에게 도서관 출입을 요구하다가 포고령에 의거, 거절당하자 사전에 은닉 · 지참한 돌을 책가방에서 꺼내어 투석 · 대치함으로써 광주사태는 시작되었다.

– 1982, 육군본부 계엄사

사례 02

무장봉기
: 윤상원을 비롯한 공산주의 혁명가들이 민족민주혁명론에 토대를 두고 광주해방구를 만들었으며, 통일혁명당에서 기원하여 남민전을 거치면서 오랜 세월을 두고 준비된 것

– 김대령, "역사로서의 5·18"

팩트체크

5·18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인증서

5·18은 불의한 국가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맞선 시민들의 항쟁이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서슬 퍼런 독재의 어둠속에서도 국민들은 광주의 불빛을 따라 한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일이 민주화운동이 되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5·18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사 중

5·18민주화운동은 한국의 민주화에 큰 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들이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민주화를 이뤄나가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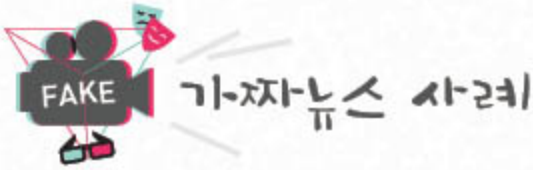
● 로슬린 리셀 박사(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IAC 위원장), 2012, 5

광주의 횃불은 민주주의의 상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버마나 인도네시아 아체와 같이 사악한 군사정권의 지배와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곳의 등대가 되고 있습니다.

● 와르다 하피즈(인도네시아 도시민민협의회 사무총장), 2005, 5

09

'임을 위한 행진곡' 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사람들의 다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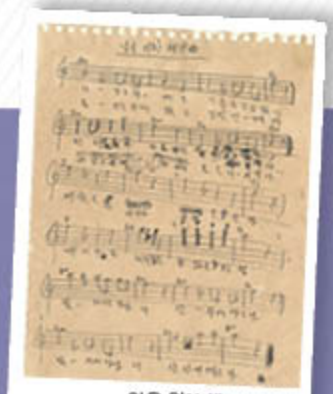


사례 01

'임을 위한 행진곡' 은 사노맹 맹원이자 종북주의자인 윤상원을 기리며 폭력혁명을 위해 매진하는 것을 선동하고 있으므로 이 노래는 국가의례곡이 되어서는 안된다.

– 김대령, "임을 위한 행진곡"

팩트체크



임을 위한 행진곡 악보

'임을 위한 행진곡'은 원래 1980년 5월 27일 전남도청에서 희생된 시민군 지도자 윤상원과 1978년 12월에 사망한 전남대 학생 박기순의 영혼결혼식에 바쳐진 추모 헌정가지만, 그 노래가 가진 역사적 상징성 때문에 1982년 가을부터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1987년 6월항쟁이나 1995년 광주특별법 제정까지 민주화운동을 이끌어가는 상징적 노래가 되었다. 1997년 5·18이 국가기념일이 된 후에는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를 기억하는 의례적인 노래로 자리 잡았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1988년 대만에서 "노동자전가"로 편곡된 이후 홍콩과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 등에서도 노동자 혹은 시민, 주민운동에 가요로 번역되어 불리어지고 있다.

● 정근식, "역사비평", 2015. 8. pp.252-277

'임을 위한 행진곡' 5·18공식기념곡 지정 결의안 의결을 환영하며, 특별법 개정으로 공식 지정해야 한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30년 넘게 5·18민주화운동을 대표하는 노래로 기념식에서 제창돼 왔을 뿐 아니라 199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에도 대통령이 참석하여 함께 불렀던 노래로 마침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국민들의 염원을 공식적으로 증명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환영 입장을 밝힌다.

● 2013년 6월 26일, 광주광역시 등 5·18 역사왜곡대책위원회 소속 광주 지역 338개 기관·단체

10

유공자 귀족 예우설과 같은 가짜뉴스로 5·18 관련 유가족들은 또 다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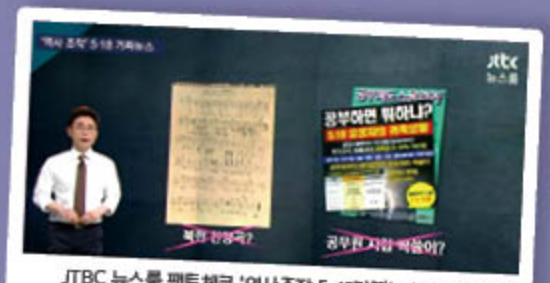
사례 01

'5 · 18유공자', 1990년 당시 화폐로 1인당 평균 5,800만원 받았다. 최고액은 3억 1,700만원, 최저액 500만원. 19세에 경찰을 닭장차에 가두었다는 공로로 2억을 보상받은 윤기권은 2001년 월북해 대남방송하고 있다. 이만이 아니다. 매월 연금을 받는다. 최고는 월 4,226,000원, 최저는 월 362,000원. 1990년의 4억, 지금의 화폐 단위로 환산하면 얼마일까? 태극무공훈장, 그 수훈자가 사망하면 참모총장이 상주가 되는 엄청난 훈장이다. 그런데도 6 · 25전투에서 태극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은 월 18만 원만 받는다.

'5 · 18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들 모두 국가고시, 임용고시에 5~10% 가산점을 받아 정부기관, 국가기관, 경찰, 법원, 검찰, 교원, 정부산하기관, 국영기업 등의 자리를 거의 싹쓸이하고 있다. 금융기관 대기업 일자리까지 최우선으로 차지한다. 채용시험이 필기 · 실기 · 면접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가점을 받으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 있어서는 각 과목별로 가점을 받는다. 머리 좋은 젊은이들이 고시촌에서 고생하며 5수, 10수하면서도 탈락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10% 가산점에 병역감면까지 받는 금수저] 전단지

팩트체크



JTBC 뉴스룸 팩트체크 '역사조작 5·18가짜뉴스'(2017.5.17.)

10명 중 4명 월소득 100만원 이하… 후유증·생활고에 목숨 끊기도

5·18기념재단의 '2006년 5·18민주유공자 생활실태 및 후유증실태 조사연구 보고서'에서는 5·18피해자들의 빈곤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조사는 총 289명의 5·18 로 인한 피해 당사자, 가족, 유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당사자의 41.2%, 유족의 76.9%가 월소득 100만원 이하 소득으로 생활했고, 당사자의 39.4%, 유족의 20.5%가 100~200만원의 소득을 얻어 대다수의 응답자가 200만원 미만 가구 소득을 보였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06년도 최저생계비는 117만422원. 당시 조사대상자들은 40~50대의 장년층이 대다수로 이들 중 절반가량이 최저생계비조차 안 되는 돈으로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 전남일보 2017.4.17.일자 [전두환 회고록 생활고 겪는 5·18피해자에 대못]

주택 우선공급, 수업료, 병원비, 자녀에 대한 취업 특별 고용, 가스비, 전기요금, 인터넷 통신 요금, TV 수신료까지 다양한 혜택이 5·18유공자들을 위해 마련된 것처럼 말하고 있다. 모든 게 거짓이다.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군경, 공상공무원, 6·25유공자, 무공 · 보국 수훈자 모두 등급별로 교육, 취업, 의료지원에 대한 혜택이 차등 제공된다. 주택 우선공급 또한 6·25참전 유공자들에 대해 지원된다.

● 전남일보 2017.3.21.일자 [대선정국에 급속 유포되는 '5·18가짜뉴스']

5·18민주화운동 관련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곳

5·18기념재단(www.518.org)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자 1994년 광주 시민은 물론 해외 동포를 포함하여, 온 국민이 모아낸 기금과 관련 피해자들의 보상금 출연 등이 모여 설립되었습니다. 1998년 광주광역시의 기금 출연 이후, 2005년 국비 보조사업으로 '민주·인권·평화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5·18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80년 5월 이후 진상규명 운동, 전두환·노태우 고소고발 운동 등과 관련된 다수의 자료를 생산 및 보존하고 있으며, 5·18민주화운동 교육 사이트(http://edu.518.org)를 별도로 운영할 만큼 다수의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관련 문의 ☎062-360-0518

5·18민주화운동기록관(http://www.518archives.go.kr)

2011년 5·18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계기로 수립된 5·18아카이브 구축 기본계획과 관련 조례를 기반으로 광주광역시청은 2015년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을 개관하였습니다. 5·18민주화운동 주요 사적지인 금남로 옛 가톨릭센터에 들어선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관련 기록물 수집 및 보존, 전시·활용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관련 문의 ☎062-613-8281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 5·18연구소(http://cnu518.jnu.ac.kr)

5·18연구소는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의미를 계승하고 학문적으로 연구하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96년 12월 10일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매년 5월 정기학술대회 개최,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학술지 발간, NGO협동교육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에는 전남대학교 5·18기념관을 설립하여 관련 자료의 수집·전시까지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관련 문의 ☎062-530-3916

광주광역시교육청
Gwangj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광주광역시교육청(www.gen.go.kr)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라 매년 5·18민주화운동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학교 및 타 지역 학교(학생, 교원 등)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관련 자료는 민주인권교육센터(민주시민교육과)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문의 ☎062-380-4596

10

| 5·18민주화운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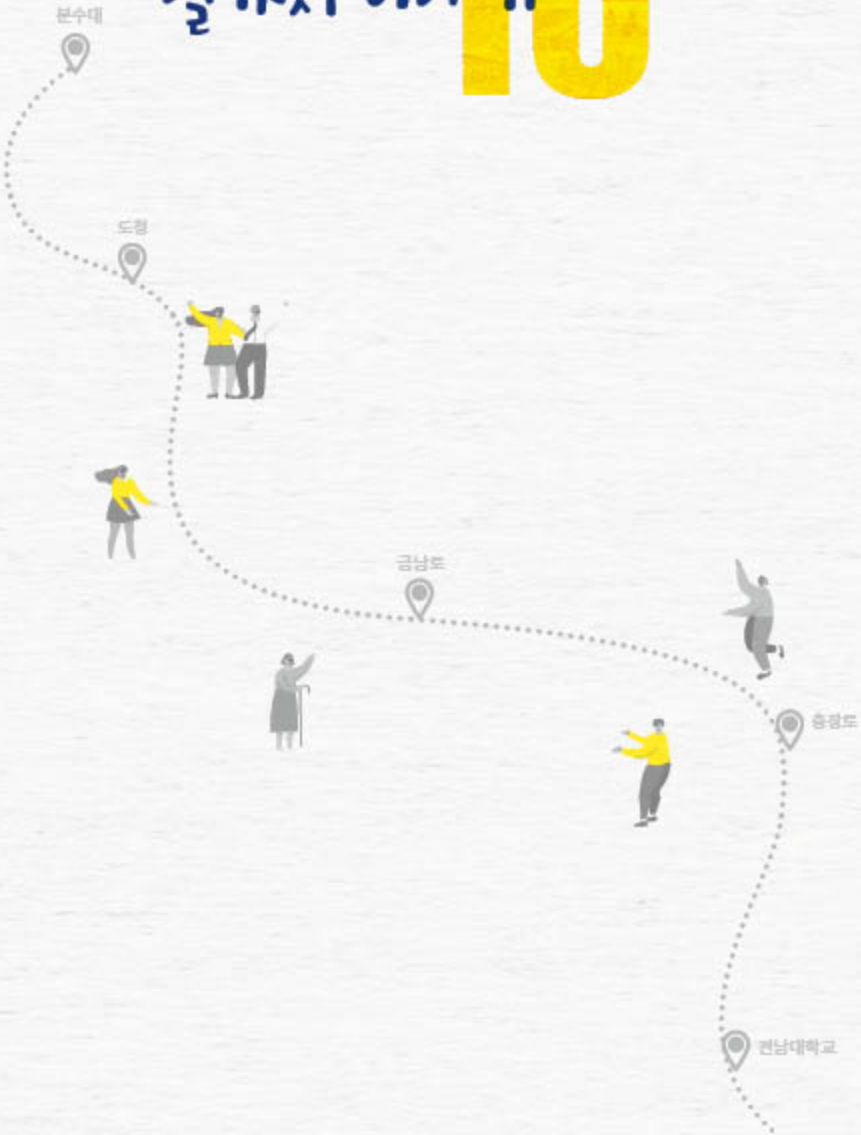
열흘간의 항쟁, 열가지 이야기

10

파도시 기와 왜야 할 5·18의 과학 이야기

10

| 5·18민주화운동 |

열흘간의 항쟁, 열가지 이야기

10